

‘누아르’ 영화 같은 앨범... 유노윤호, 영혼 바친 솔로 컴백

두번째 솔로 앨범... 타이틀곡 ‘땡큐’ 등 6곡 수록

뮤직비디오, 황정민·이정현 출연... 19금 판정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제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두 번째 솔로 앨범 ‘누아르(NOIR)’로 18일 돌아왔다. 유노윤호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사이트를 통해 타이틀곡 ‘땡큐(Thank U)’를 비롯한 새 미니앨범 음원을 공개했다.

유노윤호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오래 준비한 만큼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된다”며 “이번 앨범에는 제작부터 참여했다. 눈과 귀가 즐거운 앨범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탄생했다. 영혼까지 바친 앨범”이라고 웃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동방신기’ 최강창민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인생이 한 편의 영화 같다고 하는데, 한 남자의 인생의 회고록을 담았어요. 앨범을 영화처럼 표현하면 공감하기 쉬운 것 같아서 시네마틱으로 표현해봤죠. 전곡의 영상을 찍고 영화 포스터처럼 꾸민다고, 각각 장르를 연상할 수 있도록 영화적으로 표현했어요.”

‘누아르’ 앨범에는 타이틀곡 ‘땡큐’를 포함해 총 6곡이 수록됐다. ‘땡큐’는 드라마틱한 전개와 중독적이고 위트 있는 후렴구가 인상적인 팝 댄스곡이다. 유노윤호는 “저답게 저의 길을 가

겠다는 팝 댄스곡이다. 누아르 영화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떠오르지만, 흥겨운 분위기도 있다”며 “세 곡 정도 타이틀곡 후보가 있었는데 ‘땡큐’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었다. 안무 포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가 이어지는 뮤지컬적인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땡큐’ 가사에는 온라인상의 냉소와 조롱까지 자신을 성장시킬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유노윤호는 ‘열정 만수르’로 불리는 등 온라인상 ‘밈(Meme·유행 요소)을 응용해 만든 사진·동영상 챌린지’에 대해 “처음에 부담이 되기는 했다”고 답했다. 그는 “받아들이다 보니까 좋았고, 이 모든 게 아이디어가 됐다. 정공법이 저답기에 역으로 또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타이틀곡 ‘땡큐’ 뮤직비디오에는 유노윤호와 함께 배우 황정민과 이정현이 출연해 화제가 됐다. 누아르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뮤직비디오는 19금 등급 판정을 받았다.

유노윤호는 “누아르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를 위해 황정민 선배님과 이정현씨가 흔쾌히 출연해주셨다. 두 분의 출연으로 만족스럽게 뮤직비디오가 나왔고 저의 새로운 모습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 “황정민 선배님은 영화 ‘국제시장’ 인연으로 ‘노 개런티’ 의리로 출연해줬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해주셨고, 작업하는 내내 즐거웠다”며 “이정현씨는 기존 역할로 강렬한 인상이 있었는데 너무 예의 있고 스위트했다. 서로 배려하면서 액션 합을 맞췄고 지금의 뮤직비디오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중하고 싶지 않았다. 영화적 설정을 살리다 보니 아무래도 19금 뮤직비디오가 됐다”며 “방송을 위해 편집한 버전도 있으니 그에 맞춰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정의 힘은 두근거림과 호기심... 오래 활동하고파”

수록곡 중 멜로 감성의 ‘불면(不眠; La Rosa)’은 배우 신예은이 피쳐링에 참여했다. 트래 필름에도 출연해 섬세한 감성을 선보인다. 유노윤호는 “신예은씨의 첫 피쳐링”이라며 “녹음 전 보컬 레슨을 자청해 연습하고 녹음 중간중간에도 쉬질 않는 등 많은 열정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후속곡으로 활동할 ‘이니 미니(Eeny Meeny)’는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며, 음반으로는 미리 만날 수 있다. 유노윤호는 “특별한 분이 함께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다”고 자신했다.

또 이번 앨범의 도입부 역할을 하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의 ‘타임머신(Time Machine)’과 코미디 영화 같은 유쾌한 매력으로 부제 ‘하우스 파

티’처럼 파티 분위기를 전하는 ‘로코(Loco-House Party)’, 모노 드라마처럼 진솔한 가사와 담백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니드 유 라이트 나우(Need You Right Now)’도 있다.

유노윤호는 지치지 않는 열정의 원동력으로 두근거림과 호기심을 꼽았다. 그는 “새로운 것은 쉽게 얻을 수 없고 연습을 통해 차근차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열정의 힘은) 두근거림과 호기심이 아닐까 싶다”며 “시작했으면 진중하게 최선을 다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10대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거쳐 스타가 된 지금의 인생을 영화로 표현한다면 “휴먼 스토리”라고 답했다. 유노윤호는 “성공기까지는 아니어도 휴먼 장르 이야기의 영화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실제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웃었다.

‘동방신기’로 데뷔한 지 어느새 18년 차가 됐다. 꾸준히 음악적 발전을 시도하는 유노윤호는 “이번 앨범 성과가 좋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윤호가 새로운 틀에 도전하고 있구나, 인지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날을 불안해하는 후배들에게는 “고생도 하고 시행착오도 분명 있을 테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으면 좋겠다”며 “처음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회가 온다”고 조언했다.

유노윤호의 목표는 오래 활동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나훈아 선배님이나 조용필 선배님을 보면서 저도 여윌 갖고 무엇보다 오래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부족한 부분



유노윤호는 “저답게 저의 길을 가려고 다양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대중들이 진심으로 공감해주셔서 감사하게요.”

‘도굴’·‘펜트하우스’, 1월 둘째주 케이블TV VOD 1위

홈초이스 발표... ‘그것이 알고 싶다’ 3위 차지



영화 ‘도굴’과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케이블TV VOD 1위에 올랐다.

17일 홈초이스가 발표한 LG헬로비전, Btv 케이블, 달라티브, CMB, 현대 HCN 등 전국 케이블TV 1월 2주차 영화·방송 VOD 순위에 따르면, ‘도굴’이 영화 VOD 1위를 차지했다.

이재훈, 조우진 주연의 유쾌 통쾌한 범죄외화 영화 ‘도굴’은 타고난 천재 도굴꾼 강동구가 전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땅 속에 숨어있는 유물을 파헤쳐며 짜릿한 판을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2위 ‘이웃사촌’은 귀국하자마자 가택 연금에 당하는 야당 총재 의의석과 그의 옆집에서 24시간 도청 임무를 맡게 된 국가안보정책국 도청팀장 대권

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코미디 영화다.

3위 ‘담보’는 인정 사정없는 사채업자 두석과 후배 종배가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가 얼떨결에 9살 승이를 담보로 맡아 키우게 되면서 벌어지는 휴먼 터치 영화다.

4위로 새롭게 순위권에 오른 ‘런’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병 때문에 외딴 집에서 엄마와 단 둘이 지내던 소녀 클로이가 엄마에 대한 사소한 의심으로부터 시작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5위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1995년 입사 8년 차, 업무능력은 베테랑이지만 고졸이라 늘 말단, 회사 토익반을 같이 듣는 세 친구가 힘을 합쳐 회

사가 저지른 비리를 파헤치는 고군분투기다.

SBS 월화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종영 후에도 방송 VOD 1위 자리를 지키며 여운을 이어갔다.

‘펜트하우스’는 100층 펜트하우스의 범접불가 ‘퀵’,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욕망의 ‘프리마돈나’,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질주하는 ‘여자’의 갈등을 실감나게 그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2위 ‘미스트롯2’는 피 말리는 ‘운명의 단판 승부’가 펼쳐질 본선 2라운드 ‘1대 1 데스매치’가 예고된 가운데, 시청자들이 직접 작성한 ‘가상 데스매치 대진표’가 속출하면서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3위 ‘그것이 알고 싶다’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을 진단해 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살폈다.

4위 ‘철인왕후’는 불의의 사고로 대한민국의 대표 히세남 영혼이 깃든 중전 김소옹과 두 얼굴의 임금 철종, 두 사람이 세상 신박한 ‘노타치’ 로맨스에 불을 재대로 지켰다.

5위 ‘경이로운 소문’은 악귀 사냥꾼 ‘카운터’들이 굶주림 직원으로 위장해 지상의 악귀들을 물리치는 통쾌하고 탐내 나는 악귀타파 히어로물이다.

홈초이스는 2007년 전국 케이블TV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국내 최초의 VOD 서비스 사업자로, VOD 서비스, 광고, 영화 제작 배급, 채널 사업 등을 하고 있는 종합 미디어 콘텐츠 기업이다.

8연승 ‘부뚜막고양이’ 양요섭 “5개월 간 행복했다”

지난해 8월 전역 후 곧바로 도전한 ‘복면가왕’ 통해 다시 한번 가창력 인정 받아

그들 ‘하이라이트’ 멤버 양요섭이 5개월 간의 MBC TV 음악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양요섭은 지난 17일 방송된 ‘복면가왕’ 가왕 결정전에서 ‘첫 눈’ 무대를 선보인 데 이어 ‘부뚜막 고양이’ 가면을 벗고 반가운 정체를 공개했다.

이날 ‘부뚜막 고양이’의 무대에 판정단 흥연회는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판정단 윤상은 “지금까지 보여준 부뚜막 고양이의 무대가 꼭 지나가더라.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현영은 “부뚜막 고양이 님의 노래를 듣고 제 가슴이 울고 있다. 이 무대를 보기 위해 2주를 기다렸다”며 팬심을 드러냈다.

부뚜막 고양이를 제치고 새로운 가왕이 된 ‘보물상자’ 또한 “저도 부뚜막 고양이 님을 보면서 위로받았다”고 전했다.

양요섭은 지난해 8월 전역 후 곧바로 도전한 ‘복면가왕’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창력을 인정 받았다. 같은 해 9월 첫 등장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사랑일 뿐야’, ‘정류장’ 무대를 선보이며 가왕 자리에 올랐다.

지난 5개월간 ‘세월이 가면’, ‘우리 앞의 생이 끝나갈 때’, ‘물어본다’, ‘어른’, ‘내게로’, ‘하루의 끝’, ‘영원히 영원히’와 이날 ‘첫 눈’ 등을 통한 감성적인 무대로 8연승을 했다.

역대 ‘복면가왕’ 장기 집권 공동 2위이자 아이돌 가왕으로서는 1위 랭킹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5연승 당시에는 가왕전 최초 ‘20:1’ 스코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장기 집권기 동안 펼쳐진 양요섭의 다양한 무대는 클럽 영상으로도 매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남다른 화제성을 입증했다. ‘부뚜막 고



양요섭은 “복면가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창력 인정 받아”

양요섭은 “복면가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창력 인정 받아”

양요섭은 “복면가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창력 인정 받아”

양요섭은 “복면가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창력 인정 받아”

양요섭은 “복면가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창력 인정 받아”

양요섭은 “복면가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창력 인정 받아”

가 ‘전역할 때까지 가왕 해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뿌듯하다. 하이라이트 완전체 앨범을 하루빨리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 이후 양요섭은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를 통해 “전역하기 전 가장 먼저 찾아주시는 ‘복면가왕’ 제작진 분들께 감사하다. 매번 무대마다 너무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시고 가면도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축하하러 가셔도 즐거웠다. 벌써 제가 나온 지 5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 사랑을 받으셔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데뷔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나가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보니 부담도 많이 됐고 준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대에서 여러 선, 후배님의 다양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행복했고 제 자신에게도 많은 공부가 됐다”고 고마워했다. “매번 손에 땀을 쥐며 부뚜막 고양이의 무대를 봐주신 많은 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부뚜막 고양이를 아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양요섭은 “복면가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창력 인정 받아”

양요섭은 “복면가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창력 인정 받아”

양요섭은 “복면가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창력 인정 받아”

이용진·이진호·양세찬, SM C&C 전속계약

개그맨 이용진, 이진호, 양세찬이 SM C&C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SM C&C는 18일 “차세대 예능 주자로 손꼽히는 이용진, 이진호, 양세찬과 한 친구가 되어 기쁘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이 만큼 더욱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용진, 이진호, 양세찬은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 MBC ‘트롯트의 민족’, SBS ‘런닝맨’, tvN ‘코미디빅리그’ 등 장르를 불문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특히 세 사람은 따로 또 같이 활약하며 명실상부 ‘웃음 트렌드 세터’로서 환상의 시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다양한 캐릭터들을 히트시키며, 안방극장에 유쾌한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기에 앞으로의 활약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뉴스